

[기획연재]

기독교 신앙과 입양 2

신원하 교수 / 2003 / 페이지 수: 2

2. 신약에서의 입양개념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성도가 구원받은 것을 즉 입양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엡 1:15)”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그 유산을 상속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한다(롬 8:17, 갈 4:7). 종말에 완성될 영광의 구원에 참여할 자로 설명하며(롬 8:29). 이 양자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되었음을 강조한다(갈 3:23~29).

당시 입양자는 친자식이 갖는 권리와 동일한 법적인 지위를 누렸다. 바울은 이런 당시 법적 사회적 제도의 내용을 유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입양이라는 은유를 사용했다. 이처럼 이전의 입양은 고아를 돌보는 차원인 현재의 입양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입양행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입양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유용한 패러다임이다.

III. 언약, 혈통, 그리고 입양

1. 언약에 대한 혈통 주의적 이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의 구약의 기사들을 보면 혈통이 언약 백성의 핵심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자식이 없자 하나님께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 니이다”라고 말하였다. 엘리에셀을 입양하여 상속하겠다는 의도를 하나님께 말했다(창 15:3).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창 15:4).

이스라엘 가정은 남자아기가 없을 때 중혼과 계대결혼(levirate marriage)하여 남자아기를 낳아 가계를 이어갔고, 실제로 계대결혼에 관한 것은 모세 율법으로 명령하고 있다(신 25:5~10).

2. 신앙공동체로서의 언약공동체

위의 사실은 이스라엘을 혈통 중심적 언약공동체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우선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책망의 핵심은 이미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창 12:2)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있다.

계대결혼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 사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또 이 제도는 여인의 미래를 위한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당시에는 과부는 죽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혈통을

타고난 후손들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의 집에 속한 자들도 할례를 받게 할 것을 요구하셨고 (창 17:13) 혈통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도 안식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셨다(출20:10, 23:12, 신5:14).

이는 신약에서 바울의 가르침과 해석을 보면 더 분명해 진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부르심에 의해 약속의 자녀가 된 자가 언약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있다(롬 9:7~11).

3. 입양아에 대한 유아세례 문제

빌립보 성에서 여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의 집에 속한 자 모두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받았던 빌립보 성 간수도 “자기와 그 권속”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행 16:15, 16:34).

유아 세례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어서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약의 백성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해진다. 유아에게도 은혜의 언약의 표시(요 15:16)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바울은 피와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전 15:50).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은혜의 언약은 부모를 통해 자식에게도 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가르치신 것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구성에 있어서 ‘혈통’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원하 교수 /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출처 : 온누리신문